

최근 중고령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권혜자*

I. 머리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고령자 고용률이 최상위에 속하면서도 소득빈곤율이 높은 국가이다. 2010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8.7%로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빈곤율도 2008년 기준 45.1%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언뜻 상반된 현상처럼 보이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다. 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OECD에서 계산한 실질 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은 한국 남성의 경우 70.3세로 나타난다(OECD, 2011). 이러한 계산이 맞는다면 한국의 중고령 취업자들은 55세를 전후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70세까지 약 15년을 노동시장에서 보내야 한다.

이 글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인 55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들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고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어떤 종사상 지위에서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중고령 취업자의 추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았다. 제III장에서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취득자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를 통해 중고령자들이 신규로 얻게 되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IV장은 이 글의 요약과 시사점이다.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onestep1@keis.or.kr).

II. 중고령 취업자의 현황과 추이

1. 중고령자 주도의 취업자 증가

2000년 이후 중고령 노동시장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추세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취업자는 2000년에서 2011년까지 21,156천 명에서 24,244천 명으로 3,088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55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는 1,732천 명 증가하였다. 즉 55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분은 전체 취업자 증가량의 56.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비율도 2000년 15.2%에서 2011년 20.4%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그림 1]은 2000년대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취업자가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2003년과 2009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모든 연도에서 1~2%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고령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3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4~5%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8년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2011년에는 전년대비 6.9%의 성장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55세 미만 취업자의 증가율은 2004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1년 현재에도

〈표 1〉 55세 이상 취업자의 추이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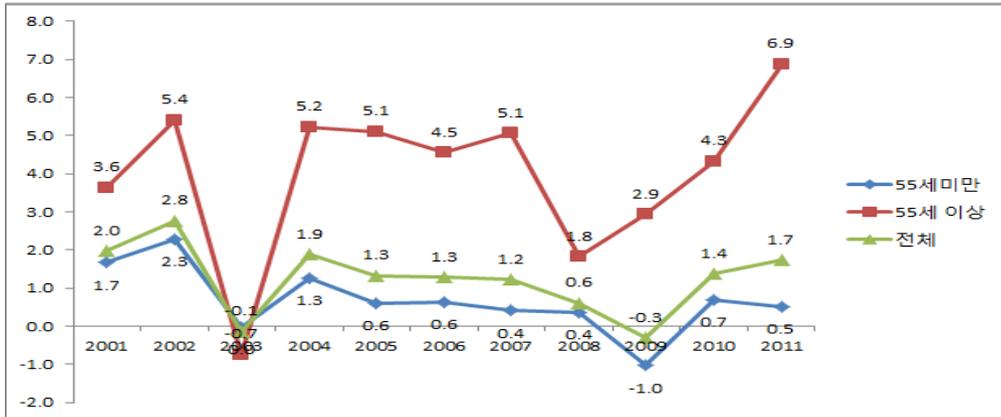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체 취업자	55세 미만	55세 이상	55세 이상의 비율
2000	21,156	17,946	3,210	15.2
2001	21,572	18,245	3,327	15.4
2002	22,169	18,662	3,507	15.8
2003	22,139	18,657	3,481	15.7
2004	22,557	18,894	3,663	16.2
2005	22,856	19,006	3,850	16.8
2006	23,151	19,126	4,025	17.4
2007	23,433	19,204	4,229	18.0
2008	23,577	19,272	4,306	18.3
2009	23,506	19,073	4,432	18.9
2010	23,829	19,205	4,624	19.4
2011	24,244	19,302	4,942	2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 중고령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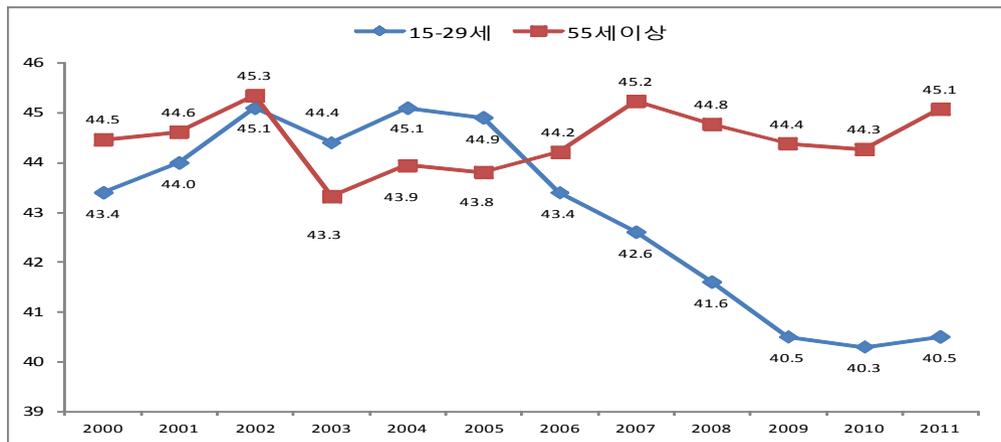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전년대비 0.5% 성장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취업자의 성장은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중고령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현상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착시현상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연령별 취업자 수를 연령별 인구수로 나눈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이 경우에도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2003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자 인구증가 이상으로 취업자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대조적으로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4년 이후 떨어지고 있어 인구감소 이상으로 취업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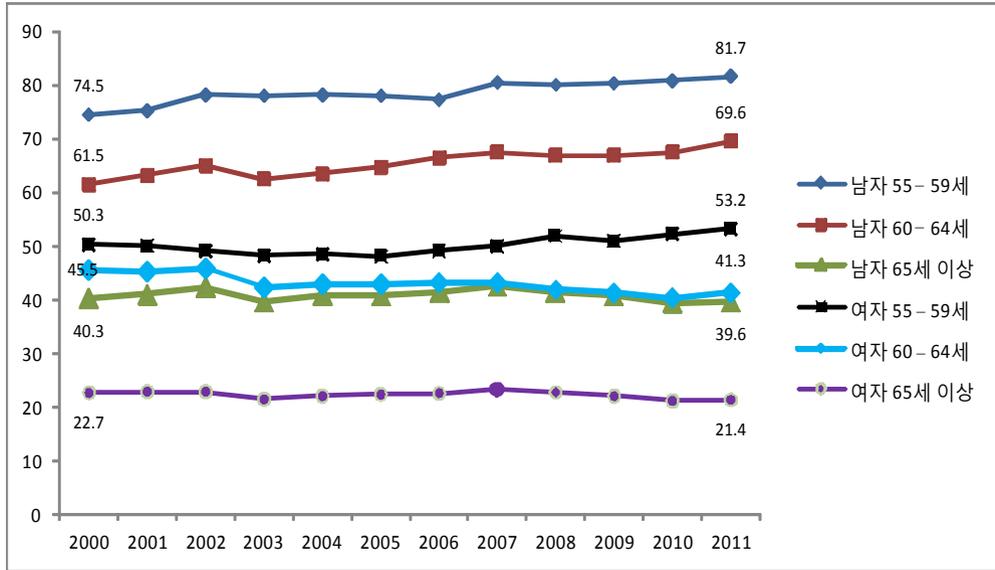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3] 중고령 취업자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그렇다면 어떤 연령대에서 중고령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그림 3]의 고용률로 보면, 중고령 취업자는 주로 남성 55~59세 집단과 남성 60~64세 집단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남성 55~59세의 고용률은 2000년 74.5%에서 2011년 81.7%로 증가하였고, 후자는 61.5%에서 69.6%로 증가하였다. 여성 55~59세의 고용률도 같은 기간 동안 50.3%에서 53.2%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 65세 이상과 여성 60세 이상 집단의 고용률은 약간 감소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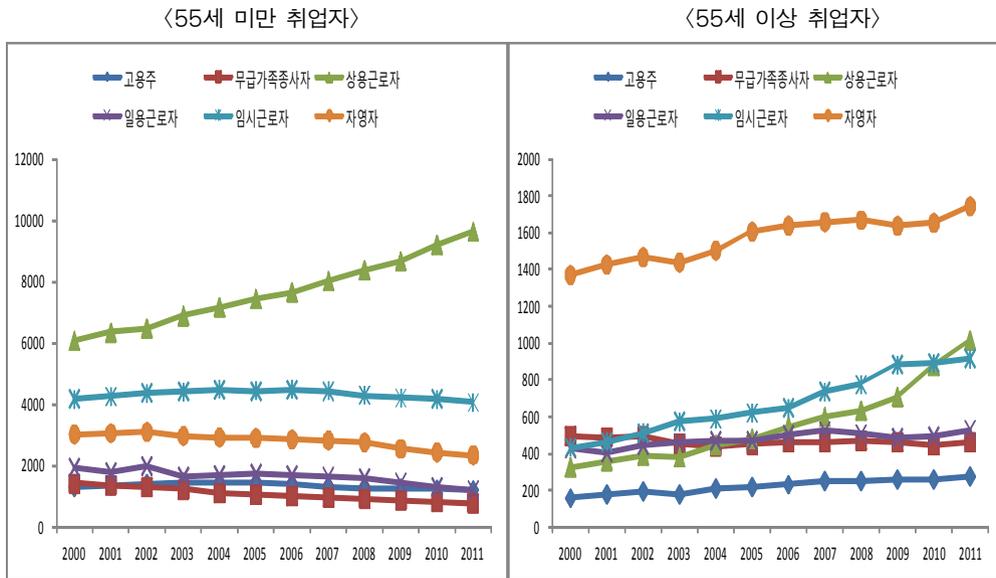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취업자 증가는 5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55세 이상의 중고령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취업자 증가는 남녀 모두 50대 후반 연령계층과 남성 60대 전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50대 후반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연령대의 고용률 증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중고령자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구조와 그 변화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구조는 55세 미만 취업자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림 4]에 의하면, 55세 미만 연령계층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른 종사

[그림 4] 55세 미만 취업자와 5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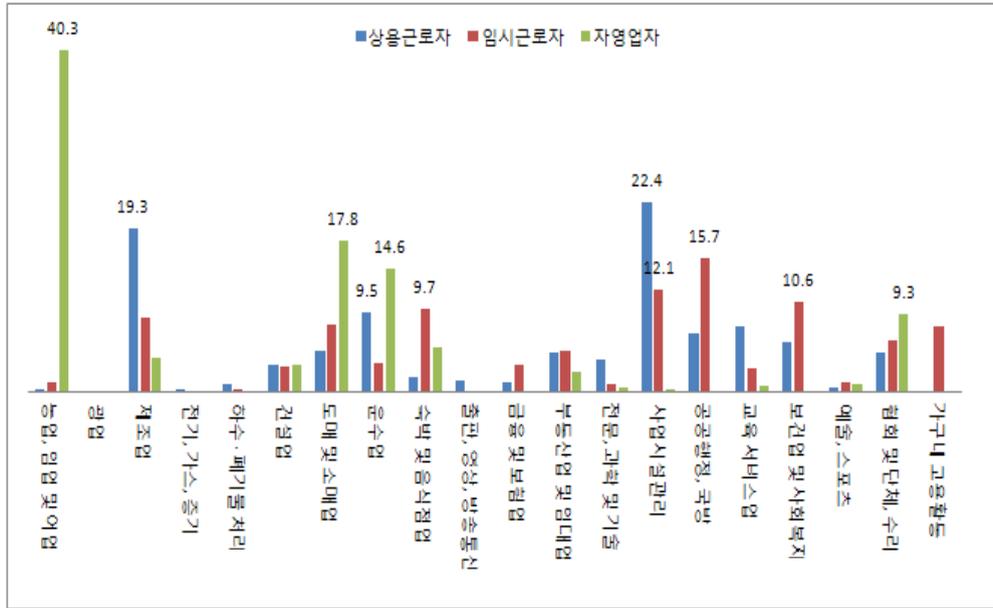
상 지위의 취업자들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55세 미만 연령계층에서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과 달리, 55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에서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순으로 나타난다.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0년부터는 상용근로자가 임시근로자를 상회하여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중고령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산업 및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고령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그림 5 참조), 자영업자는 농림어업(40%), 도소매업(17.8%), 운수업(14.6%)의 순으로 나타나고, 상용근로자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4%)과 제조업(19.3%), 임시근로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1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2.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6%), 숙박 및 음식점업(9.7%)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고령자는 그 종사상 지위에 따라 특정한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6]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7.1%, 판매 종사자 16.9% 순으로 나타나며, 상용근로자는 단순노무직 31.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8.5%, 전문가 15.7%, 관리자 8.4%의 순으로 나타난다. 임시근로자는 단순노무직 56.6%, 서비스 종사자 14.3%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5) 5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201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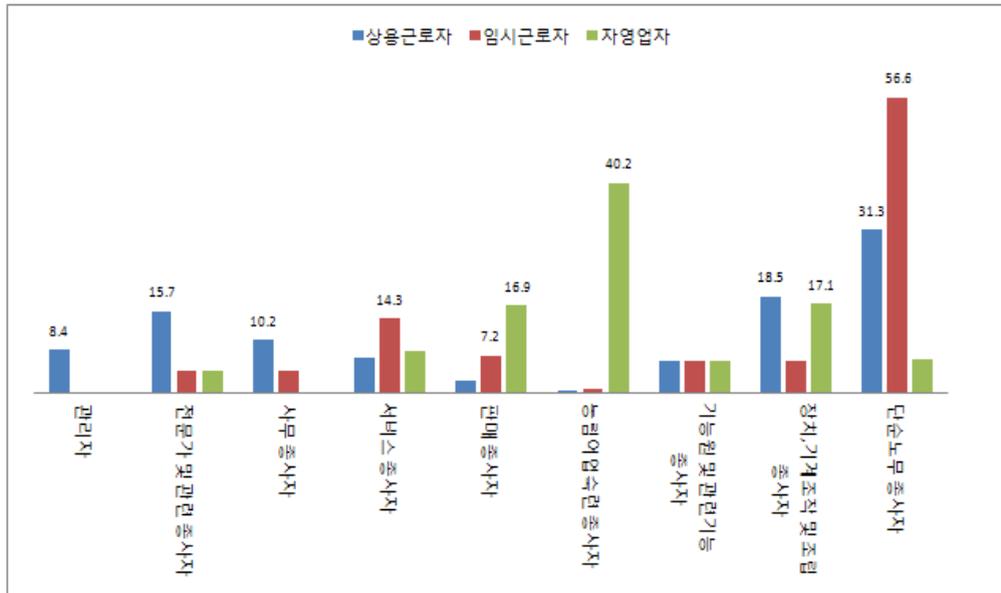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6) 5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2012. 4)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가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2000년과 2011년 사이의 취업자 증가량은 3,089천 명인데, 55세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55세 미만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1,357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용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다른 종사상 지위의 취업자들이 모두 감소한 결과였다. 이와 달리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1,732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결과였다. 특히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증가량은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증가량을 능가하였다.

<표 2> 55세 이상 취업자 증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2011-2000)

(단위: 천 명, %)

	취업자증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 체	3,089 (100.0)	48 (1.5)	-318 (-10.3)	-678 (-21.9)	4,266 (138.1)	382 (12.4)	-611 (-19.8)
55세 미만	1,357 (100.0)	-70 (-5.1)	-691 (-50.9)	-644 (-47.5)	3,578 (263.7)	-102 (-7.5)	-716 (-52.7)
55세 이상	1,732 (100.0)	117 (6.8)	372 (21.5)	-34 (-1.9)	688 (39.7)	484 (27.9)	105 (6.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이에 따라 중고령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에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하고 임금근로자 비율이 증가하였다(그림 7 참조).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자영업자 비율은 43%에서 35%로,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15%에서 9%로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 비율은 10%에서 20%로, 임시근로자 비율은 14%에서 19%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절대적인 수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상 지위별 구성에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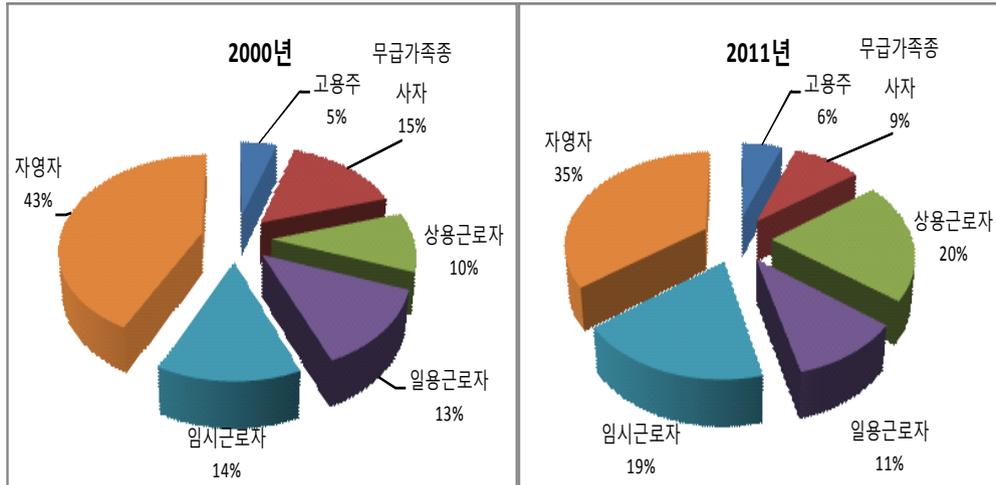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중고령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을 고령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경향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으나(정성미, 2011),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중고령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간의 산업별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많은 농림어업에서는 중고령자를 포함하여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는 오히려 중고령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¹⁾ 그런 점에서 중고령 자영업자 비율이 향후에도 감소할 것

1)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는 2004년 1,824천 명에서 2011 1,542천 명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가의 문제는 저소득 자영업의 생존가능성과 임금근로 일자리의 고용흡수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림 7] 5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2000, 2011)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Ⅲ. 중고령자의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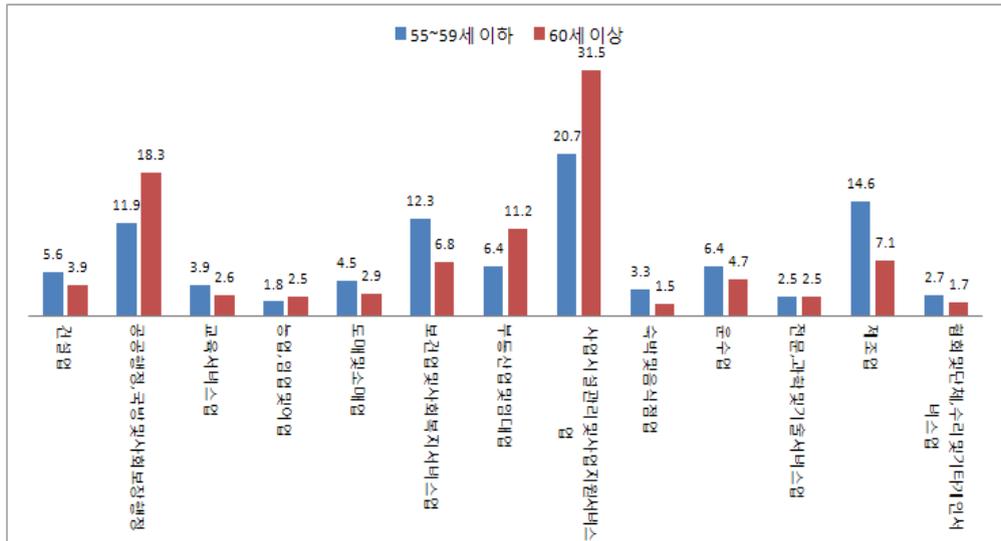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최근 중고령자의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자와 상실자는 연간 중복을 제거한 후의 순취득자와 순상실자 개념이다.

고용보험 취득자는 신규로 고용보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함으로써 중고령자들이 어떤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2011년 55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자는 769천 명이고 상실자는 786천 명으로, 고용보험 순취득자(취득-상실)는 -17천 명으로 나타난다. 퇴직 연령대에 있는 55~59세에서는 취득자가 상실자보다 많아서 순취득이 양의 값을 갖는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취득자보다 상실자가 많아서 순취득이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 연령대에 있는 50대 후반이 60세 이상 연령대에 비해서 고용보험 취득이 원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업하였고, 14.6%는 제조업, 12.3%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9%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에 취업하였다. 60세 이상의 취득자 분포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18.3%, 부동산 및 임대업에 11.2%의 순으로 나타난다. 중고령자들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중고령자들이 경비 및 청소관련직 일자리를 얻기 때문이다.

[그림 9] 55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자의 산업별 분포(2011)

(단위 : %)



주: 55세 이상 취득자 중에서 산업 내 취득자의 비율이 1% 미만인 산업은 생략함.
 자료: 고용보험 DB.

중고령자의 고용보험 상실은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들이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일자리는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일자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 이유는 중고령자들이 신규로 얻게 되는 일자리들이 경비 및 청소관련직과 같이 저임금 일자리이면서 이직률이 높은 일자리이고, 동시에 비정규직 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서도 정년퇴직으로 인한 상실 비율이 낮은 편이다.

<표 4>는 중고령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보여주는데, 비자발적 사유가 60.3%를 차지한다.2) 정년으로 인한 상실은 3.2% 수준에 불과하며, 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실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상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중고령자의 신규 일자리는 저

2) 비자발적 사유는 질병, 부상, 노령, 폐업, 도산, 공사중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계약기간 만료로 구성된다.

소득 직종과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고연령대일수록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의 사유도 계약기간 만료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중고령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

(단위: 천 명, %)

	2009	2010	2011
55세 이상 상실자 수	716 (100.0)	778 (100.0)	786 (100.0)
비자발적사유	498 (69.6)	516 (66.3)	473 (60.3)
정년	3.3	3.2	3.2
계약기간 만료	43.7	42.4	33.9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1.2	1.2	1.8
질병, 부상, 노령 등	2.7	2.7	2.7
폐업, 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3.6	3.7	4.1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0.6	0.5	0.7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14.5	12.7	13.8
그 외 자발적 사유	218 (30.4)	262 (33.7)	312 (39.7)

주: 자발적 사유는 전직, 자영업,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징계해고, 기타 개인사정 등임.
 자료: 고용보험 DB.

IV.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노동시장에서 취업자의 증가는 중고령 취업자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55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량은 전체 취업자 증가량의 약 56.1%를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비율도 15.2%에서 20.4%로 증가하였다.

중고령 취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55세 미만 연령계층에서 상용근로자만이 대폭 증가하고 다른 종사상 지위에 속한 취업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적이다.

중고령 자영업자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종사상 지위 구성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고령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중고령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경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중고령 자영업자가 농림어업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중고령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경향은 저

소득 자영업의 생존가능성과 저임금근로 일자리의 고용흡수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중고령 취업자들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특정한 산업과 직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에 집중되어 있고, 자영업자는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자영업자는 농림어업숙련직과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고, 상용근로자는 단순노무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전문직에, 임시근로자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고용보험 사업장에서도 50대 후반 고용보험 취득자의 24.9%, 60대 이상 취득자의 44.4%가 경비 및 청소관련직으로 취업하였다. 이와 같이 중고령자의 일자리가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에서, 중고령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정년퇴직 등의 사유보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1955년부터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퇴직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중고령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 일자리의 양·질적 부족이라는 문제는 고령자 친화적 직종개발이나 취업알선 서비스의 확대, 복지서비스영역에서의 부분적 일자리 확대와 같은 특정한 정책수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주된 일자리를 잃는 순간 아무런 준비 없이 전혀 다른 자리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될 퇴직자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의 고용유지가 중요하다. 점진적 퇴직, 재고용, 임금포크제는 물론, 재직 중 전직준비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규직 위주의 대책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의 정년연장이나 정년 법제화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이다. [11]

<참고문헌>

권혜자(2011), 『중고령자의 취업구조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정성미(2011),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노동리뷰』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70~91.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2년 6월 고용보험통계현황」.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